

[종합]

상장사 수익성 급속 악화

작년 1,000원어치 팔아 66원 남겨

12월 결산법인 541개社 실적 비교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들은 1천원어치 물건을 팔아 66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 협의회가 12월 결산 598개 상장사 가운데 비교 가능한 5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결산법인 2006 사업 연도 실적'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은 67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8조9천억원으로 7.8% 줄었다. <관련기사 11면>

이는 국내기업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건설, 기계, 화학, 운수장비, 전기전자, 전기기사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은 확대됐으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매출액이 631조원으로 6.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1조7천억원으로 9.6% 줄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6%로 전년보다 1.2%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1천원어치 물건을 팔아 66원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전년의 매출 1천원당 영업이익 78원에 비해 12원이 준 셈이다. 제조업은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빛을

깊는데 주력해 부채비율이 84.5%로 1.5%포인트 낮아져 재무안정성이 개선됐다. 금융업은 매출액이 40조9천억원으로 11.36% 급증했으나 영업이익은 7조2천억원으로 4.86% 늘어나는데 멀었다.

금융업은 수익개선 노력으로 이익잉여금이 13조7천억원으로 98.0% 급증, 재무상태가 호전됐다.

10대 그룹은 매출액이 327조원으로 5.9% 늘었으나 순이익은 20조3천억원으로 12.0% 급감,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매출액은 적게 늘어나고 순이익은 더 크게 감소해 상장사 실적 부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흑자 기업 비율은 81.3%로 전년에 비해 3%포인트 낮아졌고, 적자기업은 18.7%로 3%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 확정

국가 균형발전조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13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본 위원회를 열고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05년 6월 175개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발표된 이후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학교는 여수로 이전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와 중앙11구조대는 강원도와 대구로 이전하되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올 18조 투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올해 모두 18조4천57억원(순계기준)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M’자형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되며 이밖에 ▲지역문화·관광자원개발(1조6천291억원)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부문(4조6천459억원)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4조3천311억원) 등도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문화관광부가 맡는 ‘가고 싶은 섬 만들기’ 등 14개 사업, 852억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제3차연도 시행 계획인 올해 사업계획은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등 20개 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수립됐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례봉성산 매장지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9일 여순사건 연루자로 지목된 민간인 70여명이 집단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조

- 김종우



山 넘어 山

해남 화원 조선산단 조성 ‘원스톱서비스’

전남도·해남군 ‘TF팀’ 활기

대한조선 부지 현지 실사

인허가 업무 등 신속처리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설 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전남도의 테스크포스(T/F) 팀 운영이 활기로 돌아온다.

전남도 10개 팀과 해남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 T/F팀’ 40여명은 3일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산단 예정지를 둘러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산단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 대한조선이 구립리 일원 85

만여평에 조성하는 화원지방산업단지 완공되면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단지가 들어선다. 대한조선이

완공되면 3만평의 인력고용과 연 7조원의 매출로 서남권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될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농정·환경·문화재·해양·건설 등 산단조성에 필요한 부서 실무자와 해남군 관계자로 T/F 팀을 구성했다.



전남도와 해남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화원지방산업단지 테스크포스 관계자들이 3일 해남군 화원면 구립리에서 산단 건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T/F팀은 지난 달 25일 주민의견 청취 및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현지를 실사했다.

현지 둘러본 T/F팀 관계자들은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가 세계적인 조선소 건설에 최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역개발을 확기적으로

로 앞당길 산단조성을 신속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T/F팀은 오는 10일 합동토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갖고 6월 초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하순께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T/F팀 운영으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이 6개월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F팀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국장은 “행정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T/F팀 가동으로 기업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 민간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건희 삼성회장

여수 소라면 땅

2만5천평 매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개인 명의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 2만5천평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 궁항마을 서쪽 해안과 인접한 임야 6필지 6천400평을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이 일대 8필지 1만 9천여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2만5천450평에 달한다. 매입 토지에는 궁항마을 앞 바다에 있는 9천400여 평 규모의 무인도인 모개도까지 포함돼 있어 용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이 매입한 토지는 마을에서 약 1.5km떨어져 있고 여자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별장 용지나 개인 레저시설이 들어서는데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한 때 2012 박람회장 부지로 거론되는 등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우울할땐

흙장난을”

영 연구팀 “행복감 높여”

흙장난이 침울한 기분을 끌어올려주고, 나아가 면역 체계까지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흙 속에 있는 ‘우울직인’ 미생물인 마이코박테리엄 박카이(Mycobacterium vaccae)를 실험용 쥐에게 주입한 결과, 뇌에서 행복감을 높여주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1일 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주 학술지 ‘신경 과학’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로토닌의 부족은 우울한 기분과 연관된다. 일반적인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향상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 /연합뉴스

민간인 집단학살 첫 유해 발굴

과거사정리위, 내달부터 구례 봉성산 등 4곳

정부가 처음으로 6·25 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매장지 유해 발굴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소 5천여구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학살지, 경산 코발트광산, 청원 고은리 분수골 등 4곳에서 다음달 중순 발굴작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구례 봉성산 매장지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9일 여순사건 연루자로 지목된 민간인 70여명이 집단

총살된 뒤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봉성산 공동묘지에 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은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해 유족·증언과 자료는 있지만 유해 발굴이야 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진실 규명은 물론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달 중순 조달청에 의해 해양수산부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연구기

관을 선발, 9억6천만원 규모의 유해 발굴 사업 용역을 발주하며 5월 22일 대전 산내 학살지 개토를 시작으로 차례로 발굴작업에 착수해 8월 30일 까지 현장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장 가능성·유해 발굴의 시급성 등을 따져 전국 15여 곳으로 추정되는 집단 매장지 중 4곳을 발굴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발굴 지역을 늘려갈 방침이다.

유족·증언과 사료에 따르면 구례 봉성산 여순사건 지역에 70여구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

4월 2일 첫진도 개강